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vol. 29



[www.gnmecenat.or.kr](http://www.gnmecenat.or.kr)

극단현장 <길 위에서>

제38회 경상남도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현장의 연극 <길 위에서>의 한 장면이다. 작품은 홍수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위해 상림(上林)을 조성했던 고운 최치원 선생의 '애민정신(愛民精神)'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를 하는 어느 국회의원의 삶을 대비하여 교묘하게 비튼다. 우리가 걸어 가야 할 바른길(正道)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 작품은 오는 8월 말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연극축제인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발행인 황윤철  
 발행일 2020.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 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오션 커뮤니케이션즈 / 055. 296. 4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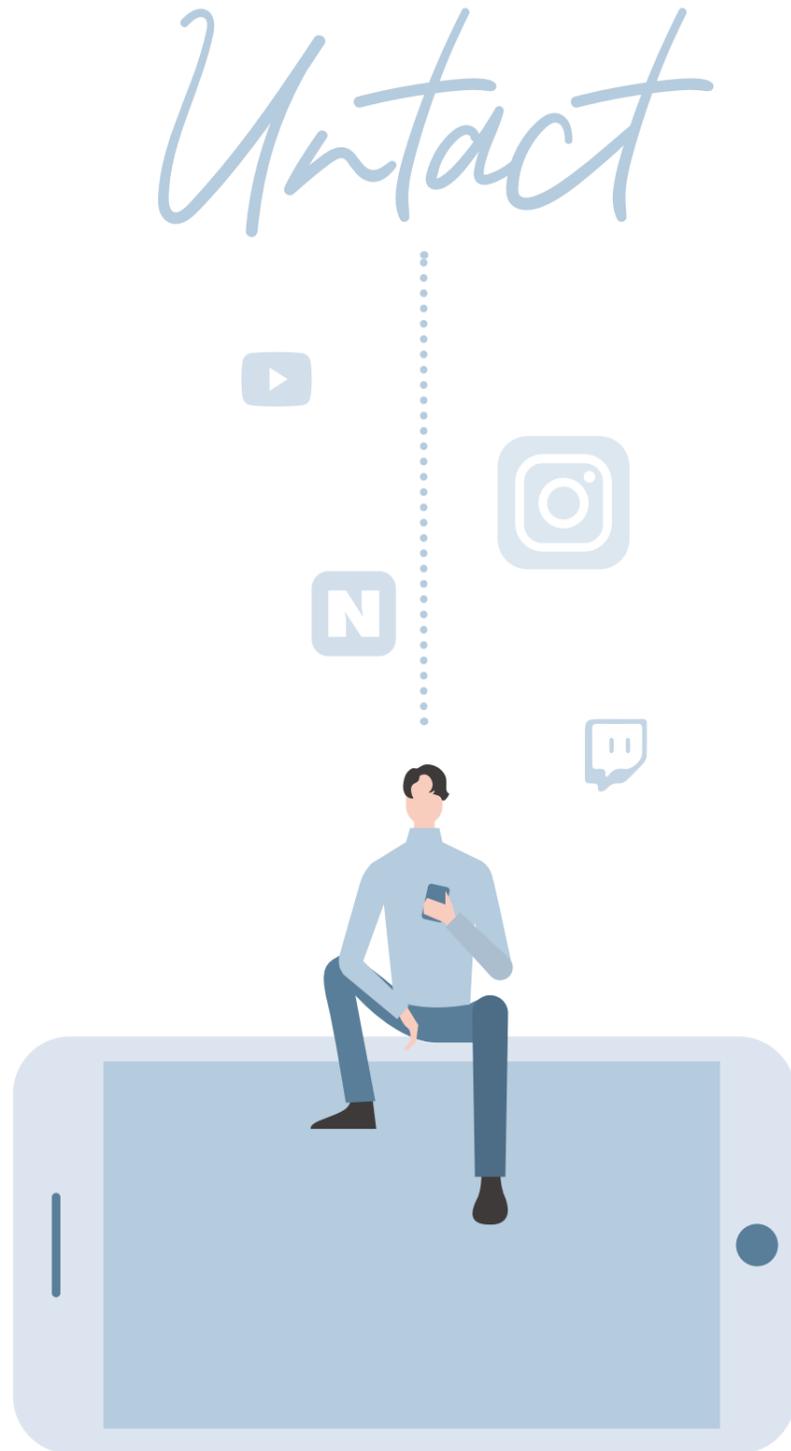
CONTENTS

메세나칼럼	02	문화예술계 위기의 시대, 무엇이 필요할까
스페셜테마	06	집, 문화공간이 되다
	10	'살롱문화' 이곳에선 누구나 예술가가 된다
아름다운 동행	14	위기 속에 피어나 더 아름다워라 - 경상남도연극제 × 경남메세나협회
메세나인터뷰	18	경남도립극단 박장렬 예술감독
포토포엠	20	거제 흥남해수욕장 by 김동철 작가
문화공간	22	함안 - 이음의 동산, 아라가야
메세나소식	26	2020 정기총회 · 정기이사회
	27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실시
	28	NH 아트프렌즈
	29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회원사소식	30	BNK경남은행 창립 50주년
		- 앞으로의 50년도 '경남'과 함께
	34	범한 산업 창립 30주년
		- 지역과 함께 걸으며 세계를 넘보다
인조이컬처	36	위대한 조형작가 문신탄생 100주년
		- 우주를 품은 조각가, 문신
	38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
메세나스페셜	40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 문학 메세나인 실비아 비치
특별기고	44	메세나와 문학 by 수필가 이종화

# 전례 없는 문화예술계 위기의 시대,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은 신속함이 필요할 때,  
디테일에 강해질 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달라져버린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조차 낯설다. 문화예술계 역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는 문화예술 창작·향유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몇 달째 완전히 중단된 셈이다. 가뜰이나 열악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감소의 수준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이 멈춰버린 현 상황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며, 종식 이후의 피해와 대응 방식조차 가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지금 전 세계와 한국은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에 해외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문화 예술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경기부양책인 일명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를 통과시켰고, 여기에 약 3억 달러 규모의 비영리 문화예술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예술위원회(ACE)도 2020년 3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6천만 파운드의 긴급지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 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이 지원되었다. 프랑스 역시 2020년 3월에 문화예술 긴급구호를 위해 1차적으로 2천 2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예술인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국내 역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인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7월 초에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상반기에도 생계지원을 위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하반기 역시 추경예산을 통해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코로나 19 지원<sup>1)</sup>’ 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원대책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 지금 국내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으레 “지원금이죠..”라는 답을 들곤 한다. 물론 지원금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원금’이라는 대답을 제일 먼저 혹은 유일하게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그간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계 주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나, 혹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대답을 들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기존의 ‘문화예술계가 열악하다’는 일반적 관념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과 위기가 명백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행해지던 지원금 방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고, 진짜로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할지 그 ‘디테일’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 지금 무엇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그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상황 진단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문화예술계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협회 및 연합회·지회를 통해 예술인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4월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지난 3월에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조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들은 보통 4~6일 정도 특정 기간 동안에만 조사가 시행되었고,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사 내용 또한 생업/활동의 주요 피해 사항, 제안사항만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문항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조사지에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통합적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는 코로나19가 예술에 미치는 인적 및 재정적 영향을 추적하는 3건의 연구를 3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기관의 응답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6일 기준, 총 17,100건의 누적 설문조사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고<sup>2)</sup>, 조사 결과 요약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가 미국 예술분야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 <http://artnuri.or.kr/>  
2) [https://data.surveygizmo.com/r/391676\\_5e8cccc0728935.37759442](https://data.surveygizmo.com/r/391676_5e8cccc0728935.37759442)

①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미친 영향, ② 아티스트와 창의인력에 미친 영향, ③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신건강에 예술과 다른 활동의 영향이라는 세 영역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월 초 업데이트된 조사 결과 요약에서는 지난 3월 통과된 미국 코로나19 구제 법안(CARES Act)에서 예술영역 내 자금 확보 성공률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도 새로 추가되었다<sup>3)</sup>.

국내에서도 물론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행보는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의 통합적 추산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3~4월에 시행된 일회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의 실태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술인·예술단체의 피해는 전염병 전파가 절정에 이른 3~4월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피해 여파가 누적되어 일상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예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적시에 문화예술계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방안일 것이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신속함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경직성으로 가뜩이나 더딘 지원 과정 및 실행 속도 역시 더딜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영국 정부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객 개발 및 효율적 운영과 문화 접근성 제고 방안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 기술과의 결합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술이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Digital Culture Network)<sup>4)</sup>는 문화예술단체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모델 및 관객 개발에 디지털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주기 위해 2019년 6월 시작한 영국예술위원회(ACE)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9인의 디지털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테크 챔피언(Tech Champions)’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소셜 미디어, 티켓팅과 CRM, 이메일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비주얼 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어 13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Google Analytics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콘텐츠 전략과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테크 챔피언이 지원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테크 챔피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들은 문화예술기관들에게 원격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원격 협업 방식, 지속적인 관객 개발 방법, 온라인 거래와 기부를 통한 수입 창출 전략 및 디지털 전략, 데이터 분석과 검색 엔진 마케팅 등과 같은 영역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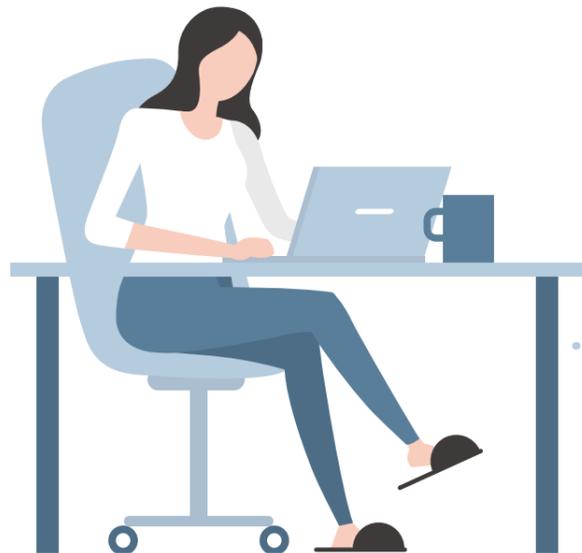
개별 도움 외에도 기술 활용과 관련한 정보와 가이드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세와 함께 많은 갤러리, 박물관, 역사유적지들이 재개장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하에 문화예술기관들이 방문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티켓 판매 조정 방안 및 방문객 데이터 정보 수집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결국 많은 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 역시 비대면이라는 세상에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혹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 주로 예술영역에만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대부분의 예술인·문화예술단체들도 결국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영상콘텐츠라는 영역을 외면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당장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팬데믹 상태가 과연 얼마나 길지 혹은 언제 또 유사한 위기가 닥칠지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제도와 방식은 무엇일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7월 초 발표된 문체부 지원 내용에도 이러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는 예술활동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와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디테일한 설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지원방식의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식적인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나가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정적인 노멀로의 회귀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현 시대에 문화예술이 가진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본다면, 이번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계를 위한 긴급처방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예술 생태계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적지원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문화예술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규정과 제한에 얽매이기보다는 열린 생각과 속도를 통해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디테일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그 결과 81%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성공률, 43%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성공률, 43%의 실업수당프로그램 성공률이 보고된 바 있다.  
4)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Digital Culture Network)는 문화 영역 내 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포럼(DCMS)의 'Culture is Digital' 보고서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 영국예술위원회(ACE)는 기술 기업과 파트너를 맺어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기술과 문화예술 영역 간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장려하고 있다.

### 유지연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교수

-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문화정책학 박사
-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부단장
- 창원시 축제위원회 위원
- 前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전문위원



Mecenatgram

gyeongnam\_mecenat\_
...

# 집

## 문화공간이 되다

공연장과 전시장을 잃은 코로나19 시대,  
<집>은 새로운 문화향유공간이 되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구석에서 즐기기 좋은 콘텐츠!!!

♥ 801명이 좋아합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 #방구석 #예술활동 #콘텐츠소개

### 유은리 '리미솔관' 관장

**한국화 고양이 그림책 <묘화첩>**

묘화첩은 고양이를 그리는 한국화가 하지혜작가의 포스터 북입니다. 포스터 북은 '소중한 당신의 공간에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세요'라는 컨셉으로 출간된 책이에요. 여러분의 공간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액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액자 없이 마스킹 테이프로 심플하게 꾸밀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 그대로가 작품이 되는 책입니다. '묘화첩' 포스터 북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갤러리에요. 그림 한 점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양이의 반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굳이 산책 시킬 필요도 없고, 알아서 배변을 잘 가리며 짓지도 않기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개보다 더 적합한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눈,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행동 등으로 우리는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들었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선물 같은 책이 바로 '묘화첩'입니다.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만큼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 책은 키우는 고양이를 대신해 충분히 공감과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술상점 #고양이작가하지혜 #묘화첩 #포스터북 #고양이그림책 #공간의분위기바꾸기 #우리집이갤러리

### 김리아 '경남영아티스트작가회' 대표

**<2020 창원청년아시아미술제> 스크린샷**

경남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기획한 <창원청년아시아 미술제>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품과 관객의 호흡을 통해 '소통'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해시태그라는 하나의 기호를 통해 작가와 관객이 전시장이 아닌 SNS 공간 속에서 함께 소통한다는 점이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SNS라는 매개체를 유쾌하게 활용한 것 같아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또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열기왕성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추천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창원청년아시아미술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채널에서 작가들의 작품들과 설명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깐요, 댓글을 통해 작가들과 소통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방구석전시회 #전시추천 #창원청년아시아미술제 #소통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cwya2020/](http://www.instagram.com/cwya2020/)  
 유튜브 : [www.youtube.com/watch?v=CFFIpl4EPVc](http://www.youtube.com/watch?v=CFFIpl4EPVc)

강정아 '양상블이랑' 대표



**▶ 양상블이랑을 검색하세요!**

'양상블이랑' Youtube 채널

'양상블이랑'은 2017년 창단한 경남의 클래식 전문 공연단체로, 해마다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해왔던 연주들을 공연장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준비한 공연들을 선보이기로 했다. 6월 현재까지 총 15개의 동영상상을 게시했고, 이 중 공연 콘텐츠는 10개이다. 현악기, 관악기, 피아노 연주와 성악가들의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상블이랑만이 할 수 있는 로컬 창작곡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양상블이랑 #경남클래식 #물러가라코로나  
#포스트코로나대비 #재능파먹기 #슬기로운음악생활

이수진 창원문화재단 공연기획자

**ON STAGE 2.0**

More Live, More Power, More Change  
숨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네이버 온스테이지

세상의 다양한 핫하고 힙한 음악을 찾아 즐기는 분들께, 더구나 방구석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께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콘텐츠가 있을까 싶네요 '네이버 온스테이지'는 장르와 지역을 불문하고 뮤지션들을 발굴해 창작활동과 라이브 공연 기회를 지원하는 네이버문화재단의 창작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인디음악부터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재즈... 다채로운 음악은 물론 재조명 받는 마스터들의 음악까지 네이버에 '온스테이지'만 검색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고품질의 영상과 음원으로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점이지!

#숨은음악에대한새로운접근 #방구석쥬크박스  
#나만알고싶은 #네이버검색창에 #온스테이지

배우민 작곡가

**음악으로 재워드림**

YouTube 예술기획B 채널검색

Youtube 채널 '음악으로 재워드림'

점점 사람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온택트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난다. 특히 퇴근 후 편안히 누워 이리저리 재미를 찾다 보면 잠들 시간이 온다.

밝은 화면을 보고 있었으니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럴 때 방문하는 <예술기획B>의 채널 기획시리즈다. 연주자들은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다니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당신을 자극하지 않고 단지 재우기 위해 연주하고 있으니 진지한 감상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화면도 흑백이다. 클래식의 느린 2악장이나 소품 또는 조용한 노래의 커버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음악을 준비하였으나 두 곡을 넘길 수 없을 것이다. 다음날 유난히 개운하다면 고품격 음악 덕분임을 잊지 말자!

#자장가 #잘때듣는유튜브 #꿀잠의비결 #고품격속면



노경무 그림책 작가



그림책 <나는 돌입니다>

이경혜 글, 송지영 그림 (문학과 지성사)  
그림책은 애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자. 여기에 어른이 읽으면 더 좋을 그림책이 있다. 가끔 남들에 비해 자신이 보잘 것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 요즘처럼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SNS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럴 땐 휴대폰을 잠시 치우고 이 책을 읽어보자. 돌은 꽃이나 나무에 비해 볼품은 없지만, 별의 시간을 품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을 다르게 타고 났다. 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꽃을 부러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한다. "절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그건 나의 NG컷과 그들의 베스트 컷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그림책 #자존감 #돌의시간 #대기만성 #LoveYourself



최동석 전문예술법인 '극단현장' 배우



/ 진주시 공식 Youtube 채널 '하모진주' 에서 현재 상영중

연극 <정크, 클라운>

다 내려놓고 놀 수 있는 연극!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놀이터를,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휴식을 준다. 놀기를 좋아하는 광대(Clow)들은 끊임없는 놀이와 장난으로 서로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다. 버려진 드럼통, 자전거 핸들, 때 묻은 바가지, 찌그러진 냄비와 함께 노는 것은 마치 놀이동산의 미로 탐험처럼 즐겁다. 자전거를 타고 들판의 바람을 신나게 가르며 달리고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 버려진 바가지는 물고기가 되어 환상 속으로 들어간다. 배우들의 숙련된 판토마임 기술과 버려진 고물을 이용한 변형놀이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초청받고 있는 극단현장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정크클라운 #업사이클링 #판토마임 #마임극  
#어른들이더재미있는 #어린이극 #경남 #연극



취미를 공유하는 살롱 문화

# 이곳에선 누구나 예술가가 된다

salon  
culture

예술이 '예술가'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 여가 시간을 뜻깊게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짧은 시간에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클래스가 속속 등장 했고,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취미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취미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클래스가 늘어나면서 부담 없이 예술을 즐기고 이를 통해 관계를 넓혀나가는 21세기형 '살롱 문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설 무대를 잃었고, 시민들은 좋은 공연을 볼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무대를 잃어버린 예술가들이 비대면 공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고, 객석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 속에 공연장이 조금씩 문을 열면서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예술로 위로를 건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살롱 문화'가 문화예술 향유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정이 모일 작은 공간, 함께할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공통의 관심사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다.

### 취미를 공유하던 살롱 문화, 문화예술 클래스로 재현되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지성인과 예술가가 한데 모여 지식을 나누고 사교를 맺는 '살롱 문화'가 성행했다. 당시 살롱은 특정 공간에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면서 지적 대화와 사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술이라는 좋은 콘텐츠와 개별 공간을 중심으로 '살롱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예술을 예술가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갔고, 시민들이 직접 그리고 만들고 쓰는 매력에 빠져들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문화예술 클래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공방이나 책방, 카페 등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클래스는 그동안 꿈만 꾸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배움의 장이자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가는 사교의 장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 같은 살롱 문화 덕분에 우리는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 '예술'이 '취미'가 되는 곳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하는 것, 혹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또한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도 예술로 취미활동을 즐길 수는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꿈에도 도전하기 시작했다.

하고 싶었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예술 분야가 있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 클래스를 찾아보자. 당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한발 먼저 용기를 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술을 취미 삼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문화예술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것도 좋다. 사진, 그림, 악기, 문학, 자수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면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뜻밖의 재능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창원의 살롱 문화를 이끄는 공간

경남지역에도 지역의 살롱 문화를 이끄는 다양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살롱 문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임을 열 공간과 좋은 콘텐츠가 필요한데, 경남지역에 있는 책방과 공방, 카페 등 소규모 공간에서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나누며 살롱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중에서 글쓰기와 사진, 그림 수업을 펼치고 있는 동네 책방 '오누이 북앤샵'과 프랑스 자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프터 자수'를 찾았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 살롱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취미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까지 공유하게 된 그들의 모습에서 18세기 프랑스 문화예술을 이끌었던 진정한 '살롱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 오누이북앤샵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333번길 28 📷 onuionui

창원 봉곡동에 자리 잡은 동네책방 ‘오누이 북앤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매가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드로잉과 필름 카메라 수업을 열고 독서 모임과 글쓰기 모임을 여는 등 창원의 살롱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장건울 작가가 운영하는 ‘오라비의 필름 카메라 클래스’는 오누이 북앤샵의 대표적인 수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창원지역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서울에서도 찾아오고 있을 정도다.

미술을 전공한 장건울 작가는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빠져 더 많은 사람들과 필름 카메라를 공유하고자 지금까지 3년 넘게 클래스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에 비해 사진은 단순히 그 순간을 기록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배우고 나니 사진도 ‘카메라’라는 붓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필름 카메라는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등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선택’하잖아요. 그 점이 좋았어요.”

### 최대 5명,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진 수업

오라비의 필름 카메라 클래스는 최대 5명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장건울 작가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손에서 손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인원이 많아지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 수업을 진행한 덕분에 수강생들은 클래스가 끝난 후에도 필름 카메라로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나는 사진을 못 찍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예술은 누군가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것을 필름에 담고, 내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필름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다. 사진을 못 찍어도 괜찮다. 나만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열정과 열린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 에프터 자수

🏠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254번길 33 📷 bonnie9317

창원 가로수길 뒷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작업실에서 한 땀 한 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났다. 직장에서 각자 일을 마치고 취미활동을 위해 ‘에프터 자수’를 찾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를 하얀 천 조각 위에 풀어냈다. 다섯 명 내외 소수의 인원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수를 놓으며 스트레스까지 내려놓고 가는 시간.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에 쌓였던 아픈 말들이 사라졌고, 입가엔 웃음이 피어났다.

프랑스 자수 공방 ‘에프터 자수’는 정혜진 작가가 지난 7년여간 자수를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수의 매력을 선물하는 공간이다. 정혜진 작가는 이 작은 작업실에서 많은 수강생들과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기쁨을 나누고 있다.

“배운다고 다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바늘조차 잡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배우고 싶어서 오시거든요. 예술적 감각보다는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프랑스 자수를 할 수 있답니다.”

### 취미로 시작한 자수, 직업이 되다

정혜진 작가는 프랑스 자수의 매력을 알기 전까지 그 흔한 십자수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보고 있던 자수책을 보고 자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멀리 부산까지 1년이 넘게 프랑스 자수를 배우러 다녔다. 취미로 시작한 자수가 직업이 되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천에 수를 놓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다음에 어떤 실을 쓸지, 다음에 어떤 기법을 쓸지만 생각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작품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북커버, 가방, 앞치마, 액자, 티슈 케이스, 옷, 브로치, 모자 등 자수를 놓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주고 싶다면, 집을 색다르게 꾸미고 싶다면, 흔한 티셔츠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옷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자. 천 위에 나만의 색을 수놓는 순간, 나도 오늘은 ‘자수 작가’다.



# 위기 속에 피어나 더 아름다워라

함께 즐기고 함께 만들었던 '경상남도연극제'

경상남도연극제  
×  
경남메세나협회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 연극인들의 축제 '제38회 경상남도연극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통영 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함께 즐기는 연극! 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내 11개 극단이 최선을 다해 완성해 낸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코로나19로 연극제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이었기에 공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행복했던 시간. 이제 조명이 꺼지고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11편의 연극이 일상에 던진 감동과 위로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 위기 속에 피어난 연극 무대

통영시와 한국연극협회 경상남도지회가 주최한 '제38회 경상남도연극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남메세나협회는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등과 함께 경상남도연극제를 후원하면서 경남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극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데 힘을 보탰다.

경상남도연극제는 경남 각 지역의 극단들이 그동안 땀 흘려 연습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경남 연극인들의 축제다. 연극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연극의 부흥을 이끄는 동시에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할 연극제가 미뤄져 6월에야 비로소 열릴 수 있었다. 안전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자가진단서 작성과 객석 거리두기 등 공연장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됐다. 지난 몇 년간 연극제를 우월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일,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무대는 펼쳐졌다. 위기 속에 피어나 더 아름다웠던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러 무대 속으로 들어가 보자.

- 1 \_\_\_ 왕, 탈을 쓰다-극단 장자번덕(사천)
- 2 \_\_\_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극단 아시랑(함안)
- 3 \_\_\_ 꽃산-극단 미소(창원)



## 11편의 작품에 실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

- \_\_\_ 아이 라이크 유 진해지부 극단고도 / 차영우 연출
- \_\_\_ 나의 한국식 아파트 밀양지부 극단 메들리 / 김은민 연출
- \_\_\_ 크라켄을 만난다면 거제지부 극단 예도 / 이상우 연출
- \_\_\_ 쉬즈블루 창원지부 극단 나비 / 김동원 연출
- \_\_\_ 왕, 탈을 쓰다 사천지부 극단 장자번덕 / 이훈호 연출
- \_\_\_ 있는 듯 없는 듯 로맨스 마산지부 극단 상상창고 / 김소정 연출
- \_\_\_ 조선도공 백파선 김해지부 극단 이루어 / 이정우 연출
- \_\_\_ 꽃산 창원지부 극단 미소 / 장종도 연출
- \_\_\_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함안지부 극단 아시랑 / 손민규 연출
- \_\_\_ 나의 아름다운 백합 통영지부 극단 벚수골 / 장창석 연출
- \_\_\_ 길 위에서 진주지부 극단 현장 / 고능석 연출

한 편의 연극 같은 폐막식

지난 수개월간 공연을 펼치지 못했던 극단들이 드디어 무대에 오르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경연을 떠나 그저 무대에 오른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고, 같이 무대를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음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무대가 끝났다는 아쉬움의 눈물을, 또 누군가는 함께 공연을 펼쳤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십여 일의 시간. 제38회 경상남도연극제는 마치 한 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시상식 겸 폐막식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11편의 연극을 심사한 연출가 윤우영, 평론가 이정만, 극작가 김수미 심사위원을 대표해 윤우영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이 발표됐다. 윤 심사위원장은 “이번 연극제는 매력적인 연극 소재와 다양한 장르, 독특한 형식 등으로 경남 연극의 우수성을 알린 연극제였고, 몇몇 작품들은 재공연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평하며 “다만 아쉬운 점은 그간 경남 연극 수준이 높았던 만큼 기대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높아진 눈높이로 볼 때 희곡의 완성도, 연출상 불필요한 장면 삽입, 일부 배우의 무대 워킹과 대사 전달력 등에서 문제가 었보였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또 윤 심사위원장은 “각 극단의 관심과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거리가 많았던 풍성한 연극제였다”고 덧붙였다.



제38회 경상남도연극제 수상 명단

단체 대상	경남도지사상	극단 현장 <길 위에서>
단체 금상	통영시장상	극단 박수골 <나의 아름다운 백합>
단체 은상	경남메세나협회장상	극단 아시랑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단체 은상	통영시의회의장상	극단 장자번덕 <왕, 탈을 쓰다>
단체 은상	사)한국예총경상남도연협회장상	극단 예도 <크라켄을 만난다면>
단체 은상	사)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통영지회장상	극단 이루마 <조선도공 백파선>
연출상	사)한국연출가협회이사장상	극단 현장 <길 위에서> 고능석
희곡상	사)한국극작가협회이사장상	극단 예도 <크라켄을 만난다면> 이선경
무대예술상	사)한국연극협회 경상남도지회장상	극단 장자번덕 <왕, 탈을 쓰다> 김주경
연기대상	경남도지사상	극단 현장 <길 위에서> 최동석
연기대상	경남도지사상	극단 박수골 <나의 아름다운 백합> 박승규
우수연기상	사)한국연극협회 경상남도지회장상	극단 미소 <꽃신> 손미나
우수연기상	사)한국연극배우협회경상남도지회장상	극단 예도 <크라켄을 만난다면> 이삼우
우수연기상	사)한국연극배우협회경상남도지회장상	극단 아시랑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김수현
우수연기상	사)한국연극배우협회경상남도지회장상	극단 장자번덕 <왕, 탈을 쓰다> 정은뜸
우수연기상	사)한국연극배우협회경상남도지회장상	극단 장자번덕 <왕, 탈을 쓰다>



1 \_\_\_\_ 나의 아름다운 백합-극단 박수골(통영)  
2 \_\_\_\_ 조선도공 백파선-극단 이루마(김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하게 만든 작품

올해 경상남도연극제 대상은 극단 현장의 <길 위에서>가 선정 됐다. 이 작품은 오는 8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 작품은 정치인의 자서전을 대필하게 된 소설가의 눈으로 함양 상림을 조성해 백성을 홍수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고운 최치원 선생과 사리사육을 채우려 하는 정치인의 삶을 교묘하게 비튼 작품으로 우리가 진짜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다.

극 중에서 최치원이 25세때 중국인 오침에게 보낸 시를 읊는데 ‘세파 속을 헤매면 웃음거리 될 뿐, 골은 길 가려거든 어리석어야 하지요’란 장면이 귀에 맴돌았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해도 가고자 하는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경남 연극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들이 어리석을 만큼 움직이게 연극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준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무대에서 수많은 인생을 엿보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한여름 밤의 연극축제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연극제였지만, 상을 받을 때마다 누구보다 큰 박수로 기쁨을 나눴던 연극인들. 경남의 연극인들은 그저 오늘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기쁘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고능석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장이 남긴 이 한마디를 남기고자 한다. 무대가 그리웠던 수많은 연극인, 그리고 무대를 잃어버린 모든 문화예술인의 심경을 대변한 이 한마디에 폐막식에 참가한 모든 연극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공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경남’이라는 무대에 ‘연극’이라는 공연을 올리다

## 경남도립극단 박장렬 예술감독



경남도립극단은 지난 2월 박장렬 초대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도민을 위한 예술단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경남이라는 커다란 무대에 연극이라는 공연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 도립극단의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박장렬 예술감독을 만났다.

**Q** 초대 예술감독으로서 경남도립극단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많은 극단에서 연출을 해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어요. 그동안 시립이나 도립극단의 경우 지역 극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장과는 다른 예술 행정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남도립극단 예술감독 모집 소식을 듣고 도립극단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그동안 연극을 하면서 만났던 경남 연극인들의 밝은 에너지가 참 좋았거든요.

경남도립극단은 현재 좋은 작품, 아름다운 예술 행정 그리고 도민을 위한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단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경남 전체 연극계에 좋은 에너지로 파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극단 이름 앞에 ‘경남도립’이 붙은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런 기대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A.** 당연히 부담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비용으로 극단을 운영하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죠. 경남도립극단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도민을 위한 극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 ‘연극’을 만드는 일이에요. 경남의 좋은 연극인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해 왔던 연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창단공연으로 준비 중인 <토지>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연극 무대를 통해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만 없다면, 오는 9월에 <토지> 1부를 선보이고 내년엔 <토지> 2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래전 작품이지만, 요즘 시대에도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삶에 연민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술이란 것도 연민이 있어야 가능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거든요.

<토지>에는 다양한 인간상이 등장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시각대로, 청년은 청년의 시각대로, 어른은 어른의 시각대로 누구나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함께 <토지>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Q**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트노믹스’란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아트노믹스가 무엇인가요.

**A.**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열려있어야 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이 해야 할 일이지요. 공연을 보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티켓 하나를 구입할때마다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 한 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예술(Art)과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아트노믹스’란 이름으로 제안해 본 것입니다. 시민들이 예술을 즐기는 것으로 지역 경제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예술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내년엔 색다른 공연도 기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공연인지 궁금합니다.

**A.** 경남도립극단에서 <경남의 아침>이라는 매머드급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비예술가 500여 명이 모여 꾸미는 대형 공연입니다. 대형 스타디움이 어떻게 공연장으로 변모할지,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모여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갈지, 연습 과정에서 가족이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술이 어떻게 각 가정에 침투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내년 가을쯤에는 시민과 단원이 어우러진 한 편의 거대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남도립극단은 경남 연극의 미래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남 연극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울에 ‘경남극장’을 열어서 지역 극단들이 서울에서 공연할 기회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또 내년에는 경남도립극단 연수단원도 뽑을 예정인데, 연수단원을 경남 연극의 인력 풀로 만들어서 다른 극단에서 필요할 경우 데려다 무대에 세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둘 계획입니다. 저희가 훈련시킨 단원이 지역 극단의 무대에 오르면, 극단은 좋은 배우를 얻고 연수단원은 무대 경험을 통해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하겠죠. 당연히 경남 연극 수준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예술이란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족이 보고 행복할 수 있는 작품, 같이 공연을 보고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드는 극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안개가 짙은들 —— 나태주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깊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 함안 이름의 동산, 아라가야

단발머리 여중 시절 함안에서 전학 온 춤추는 친구를 만났다. 집이 함안군 말산면 신리 xxx라고 했다. 그것이 반세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알고 지낸 함안의 전부다. 또 한 사람의 벗을 만나 죽음의 지킴이가 되자 했다. 함안에 선영이 있다며 동행을 청했다.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로 향했다.

“ 찬란한 아라가야의  
역사공간속으로 ”



2

## 고려동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공간. 충절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와 개혁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야망의 무리가 공존한다. 둘 다 역사의 중심을 지탱하는 자락이다. 두 왕조를 섬길 수는 없어 스스로 유배지를 만들기로 작정한 영남 삼은이 있었으니 금은 조열, 모은 이오, 만은 홍재 선생이다. 이오(李午) 선생은 지금의 산인면 모곡리에 담장을 쌓고 담장 안은 고려. 담장 밖은 조선이라 경계를 지었다.

자손들로 하여금 담장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며 고려인으로 혼육했다. 무려 20대를 잇는 600여 년 세월의 유지를 받들어 고려동을 지켜낸 재령 이씨 일가의 정신은 긴 세월을 함께 피고 지면서도 본색을 지키는 자미화(백일홍, 배롱나무)의 자태와 초심을 지키는 주춧돌 위의 기둥으로 우뚝 서있다.

- 1 \_\_ 함안박물관
- 2 \_\_ 말이산 고분군 전경
- 3 \_\_ 고려동 유적지



1

가는 차 안에서 함안에는 큰 산이 없어 높은 산을 대신한다 하여 대산(代山)이라 이름 지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사는 큰 절일까? 상상은 자유다.

남강과 낙동강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정점에 여항산이 있고 여기서 물길이 역류하여 해마다 홍수가 나면 배 한척 남을 땅만 물 위에 있다 하여 여항산이라 했단다. 그래서 가장 일찍이 길고 긴 제방을 쌓았고 자연의 섭리에 맞는 물길을 따르라고 법수(法水)라는 땅 이름도 지었다고 한다. 지혜로운 선현들이 일구어 만든 인공과 자연이 만나는 이쯤이면 이 고을을 정탐하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가보자.

## 말이산 고분군

함안군청을 발치에 두고 야트막하게 솟아오른 능선 위로 몽글몽글 봉긋하게 솟아오른 무덤들이 오순도순 다정히 앉은 듯이 누워있다. 엄마! 하고 달려가면 아이의 조막손을 무명저고리 셔를 열어 쪽 집어넣고서 넓은 치맛자락 둘러 몸뚱이를 감싸 안고 영당이 두드리는 본향(本鄉)의 내음이 향기로 스친다.

아라가야. 엄마의 바다, 할머니의 품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불꽃무늬 토기를 들고 있는 여인을 그려본다. 아! 생명의 신성함이 온몸에 드리운다. 바다같이 깊고 넓은 사랑의 온기가 뿔어져 나온다. 이내 편안해진다. 威安.

3



1



1 & 2 \_\_\_\_ 함안 무진정

### 무진정

임금을 치려는 이성계의 속셈을 미리 알아채고 병관을 거두어 사적을 보존하라 청했으나 공양왕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3일간 상소를 올리고 왕이 폐위되자 두문동에서 국사 회복을 논의했던 당대의 학자이자 거문고와 그림에 능한 충신이 함안으로 낙향했다.

금은 조열(琴隱趙悅)선생이시다.

태조가 탄금을 청해도 정동이 태조의 어진을 요청해도 전왕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라 거절하였다. 고려가 멸망하자 비가애영(悲歌哀詠)으로 세월을 보낸 그의 충절은 손자가 이어받았다. 금을 타는 소리가 십 리 밖의 새들도 귀 기울이게 했다는 예술적 풍미와 자적인 품모는 연산군의 폭정을 부채질 한 유자광을 탄핵 상소하고 당쟁과 사화로 얼룩진 현실 정치의 욕망을 과감하게 떨치고 함안의 두 칸 정자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소박함으로 무한한 즐거움을 일구어 낸 고손자 무진(無盡) 조참(趙參) 선생에게로 이어진 것일까?

700년의 은거 속에 꽃을 피워낸 아라홍련 자색의 아름다운 자태와 어우러져 펼쳐지는 불꽃 낙화의 향연 속에 둘다리를 돌아 넘고 비상하는 춤사위를 상상해본다.

### 회산리

동서로 떨어진 이오 선생과 조열 선생의 유적들의 중간에 소재한 회산리 기슭. 지금은 봉불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 잡고 있는 밭치에 왕씨들의 집성촌이라 여겨지는 마을이 있다. 멸망한 고려의 왕손들이 살아남기 위해 王 자에 가획하여 田, 玉, 畝 등의 성씨로 개명했다는 설이 있다.

그 속에서도 지켜낸 王家. 어찌면 은거한 그들을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한 고려 유민들의 만남의 장소는 아니었을까?

함안.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면 임금이 태어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12명의 간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춤추고 노래했다. 붉은 보자기에 싸인 황금 귀썩이 내려오고 그 속의 여섯 앞에서 태어난 여섯 아이는 가야 연맹체를 결성한 여섯 가야의 왕이 된다.

그들은 서로 상생한다. 다투지 않는다. 아라는 바다요 모두(威)의 염원을 담은 항아리고 동시에 함(할머니)이다. 모두의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혹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서로 돕고 나누는 평화로움 속에 깃들인 행복감.

咸安.

이곳은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품어주는 항아리 같은 본원이고 따스한 품이다. 그리고 생명 이음의 동산이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함안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는 옛 숲을 그리워하는 詩가 되었고 그 詩는 겸재 정선의 畵로 남았는데 함안으로 귀향한 기개 높은 선비정신은 달관의 경계를 넘어 따스한 愛로 땅을 채운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역사라고 했던가. 엄마의 바다, 역사의 고을에서 불꽃의 향연 속에 선비의 학춤과 백조의 몸짓이 나누는 대화를 그려본다.

“ 엄마의 바다, 역사의 고을에서 불꽃의 향연속에  
선비의 학춤과 백조의 몸짓이 나누는 대화를 그려본다 ”

2



# Mecenat News

## 2020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월 25일(화)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2020년도 정기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의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더불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신임 임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 178개 팀 결연을 달성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도 사업결과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 136개팀, 대기업 42개팀이 결연을 맺어 지정기탁 후원을 포함하여 약 30억여 원이 예술단체에 지원되었다. 그 결과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창작활동이 경남의 문화자산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었다. 이로써 협회는 7년 연속 100개 팀 이상 결연성적을 거두었다.

황원철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도 경남메세나협회의 값진

성과들은 도내 기업인들의 문화예술 사랑과 참된 후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예술은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결과 보고에 이어 2020년도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0년도에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경상남도과 창원시, 김해시에 이어 사천시와 통영시가 신규로 참여하고, 국비도 편성되어 매칭펀드

지원 비율이 예년에 비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180개 팀 이상 결연을 달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과 국비가 지원되는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서 2020년도 임원진 재구성에 대한 임원선임이 이루어졌다. 부회장에는 경남도의회 임경숙 전의원이 재선임되었으며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김한술 본부장이 교체선임되었다. 이사에는 경원벤처(주) 공경열 대표이사, 화성G&I(주) 김원철 회장, 신화철강(주) 정현숙 대표이사, 원광건설(주) 조성재 대표이사가 재선임되었다. 감사에는 청호산업 이동기 회장이 유임되었다. 이로써 2020년도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9명, 감사 2명, 이사 13명, 고문 4명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회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되었다.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좌석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무사히 진행되었다.

## 2020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실시

2020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2월 한 달간 참여 기업과 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2020년도 매칭펀드 사업 제1차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 169개 기업과 146개 예술단체가 매칭펀드 결연을 맺게 되었다.

기업과 예술단체간 창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메세나 펀드지원금을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상남도과 창원시, 김해시에 이어 사천시와 통영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 메세나활동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는 올해부터 '지역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 메세나단체의 개별적인 예술 후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메세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한국 메세나협회가 주축이 되어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경남에서는 경남재즈오케스트라, 고성오광대, 세종국악회관 등 총 20개 예술단체가 수혜단체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선정된 단체들에게는 국비로 구성된 펀드지원금이 교부된다.

선정된 예술단체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자금 집행 그리고 투명한 정산을 돕고자 5월 21일 창원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단체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 백민현 대리가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경남메세나협회 손수나 대리가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사업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정산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의 활용이 생소한 예술단체 담당자들을 위해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별 맞춤형 지도와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협회 담당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받는 예술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소되었다. 각 예술단체들에는 교육 책자가 우편 발송되었고, 신규 결연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집행과 정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사천·통영시 참여로 예술 후원 확대

올해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는 사천시와 통영시도 참여한다. 기존 경상남도, 창원시와 김해시에 이어 두 지자체가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도내 예술 후원이 더욱 확대되었다. 사천시와 통영시의 펀드지원금은 각각 리미술관, 삼천포아가씨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통영 옷칠미술관, 통영예총에 전달되었다. 사천시와 통영시의 메세나 참여와 서부경남 문화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Mecenat News

##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 LH 아트프렌즈

지난 6월 16일,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문화예술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LH가 경남메세나협회에 전달한 지원금은 도내 구석구석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리는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문화예술 'LH 아트프렌즈'

올해로 2회째를 맞는 'LH 아트프렌즈'는 경남메세나협회와 LH가 경남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LH는 열악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 구축에 더 많은 힘을 보태고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15개 예술인(단체)에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나인뮤지, 창동예술촌, 거제미술협회 등 LH와 창의적 역량을 나누며 함께 우정을 쌓아갈 15개 경남의 예술단체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 기업과 예술 그리고 지역사회의 WIN-WIN-WIN 파트너십

유례 없는 바이러스 확산사태로 인하여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진행된 'LH 아트프렌즈'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지쳐있는 경남도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와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남지역 문화예술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꾸준히 협업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LH 자체의 문화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통해 경남지역 문화예술 향유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LH는 향후에도 지역민을 위한 나눔음악회 개최, LH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국내 문화예술계를 꽃피우는 메세나 기업·공공기관을 찾습니다!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매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 후원 범위

- 음악
- 미술
- 영화, 연예
- 무용, 연극
- 국악, 문화재 보존
- 사진
- 축제 개최, 지원
- 출판, 도서기부
- 문학, 어문
- 건축

### 인증 대상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을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9조 제항 근거

### 추진절차

- 01 신청 접수 공고일 ~ 8월 31일(월) 17시 마감, 이메일 접수
- 02 서류 심사 접수 시 ~ 9월 4일(금)
- 03 현장 평가 9월 1일(화) ~ 9월 25일(금) 중, 현장평가대상 개별 연락
- 04 인증 심의위원회 10월 중
- 05 결과발표 10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06 인증 수여식 10월 말~11월 초, 인증수여식 개최

### 신청방법

- 제출 방법 patron@kmac.co.kr 로 이메일 접수
- ※ 8월 31일(월) 17시 마감, 우편이나 방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 별첨서류
- ※ 제출서류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알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조하십시오.

### 인증 기관 대상 인센티브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KB 글리우대 혜택 (중소, 중견기업)
- 언론홍보 (기획기사)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우수사례 견학)
-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지원
- 문화향유 지원 (공연 관람 등)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인증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2020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오후 7시(2회차로 나누어 동일하게 실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 강의실1
- 내용 인증제 소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설명
- ※ 설명회 종료 후 참석자 대상 뮤지컬 '모차르트' 단체 관람 (세종대극장/ 1회차 오후 3시~6시 15분, 2회차 오후 8시~11시 15분)

### 인증 설명회 사전 참가 접수처 및 문의처

운영사무국 ☎ 02-3786-0355/0391 ✉ patron@kmac.co.kr 카카오톡에서 art\_tree 로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상담 가능





## BNK경남은행 창립 50주년 앞으로의 50년도 '경남'과 함께

1970년 5월 22일 문을 연 BNK경남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BNK경남은행 성장의 역사는 지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남의 문화예술이 꽃피우기 시작한 역사였다. 지난 50년 BNK경남은행은 '혼자 빨리' 가기보다는 늘 주변을 돌아보며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더 밝은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 사랑받은 50년, 함께 나눌 미래 ”

### 도심 속에 피어난 '예술'이란 꽃

분주한 도심의 빌딩 숲 속, 문화예술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BNK경남은행갤러리가 바로 그곳이다. 전시를 보러 온 사람은 물론 은행에 불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갤러리를 찾은 사람 모두에게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공간이다.

BNK경남은행 본점(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1층에 자리잡은 BNK경남은행갤러리는 지역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두루 활용,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 후 줄곧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 수준 높은 작품을 소개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대학생 창작지원전 <Boom up>전을 열어 열정적인 신예작가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2016년에는 <중견작가의 힘>이란 주제로 문운식, 박상복 작가의 한국화 전시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17년에는 <그림들 위의 그림전>을 통해 김환기, 유영국, 이우환 등 한국 거장의 작품을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기획전과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위한 무료 대관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동안 경남 지역은 갤러리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이 시민들에게 선보여질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시작된 무료 대관사업은 작가들이 경제적 부담 덜고 소중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BNK경남은행갤러리는 올 한해만 14개 팀의 전시가 기획돼 있다. 해마다 개인과 단체 등에게 전시 기회를 주면서 지역의 많은 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북돋고 있다. 더욱이 개인과 단체 등을 선정할 때도 특정 예술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지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 송수민 큐레이터는 “BNK경남은행 갤러리로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역민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고 있는 듯해 뿌듯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예 작가를 포함한 지역 작가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지역문화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BNK경남은행갤러리 전경



문화예술 불모지에 '메세나'를 심다

BNK경남은행은 '21세기는 문화 경쟁력의 시대'라는 데 공감해 문화 예술 투자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지역 최초로 출범한 문화예술단체인 '경남메세나협회'가 출범하는데 큰 힘을 보탬으로써 산업단지가 즐비한 경남지역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렸다. 특히 지난 2018년 황윤철 은행장이 경남메세나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도모, 경남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경남메세나협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경남에 메세나 운동이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경남 오페라단을 18년째 후원하면서 경남지역에 오페라가 활성화되는 데도 힘을 보탬다. 경남오페라단은 BNK경남은행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3년 <라

트비아타>로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남 오페라단의 쾌거는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BNK경남은행이 환경을 조성된 덕분에 이룬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받은 사랑 다시 나누는 '사회공헌활동'

BNK경남은행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펼쳐 왔다. 학술·교육, 메세나활동, 체육 지원, 나눔활동 등을 통해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을 정도다.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가운데 햇볕 따스한 봄날에 펼쳐지는 여성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대표적 문예 행사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에는 지역은행 최초로 비영리 공익재단인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설립했다.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은 아동과 청소년의 장학과 복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뿐 아니라 문화 예술과 체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 임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BNK경남은행봉사단'은 전국 영업본부별로 28개에 이르는 봉사대가 편성돼 운영되며 구호활동, 농촌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릴레이 사랑나눔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허무는 나눔을 실천하는가 하면, 환경보호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1 \_\_\_\_ 경남메세나협회 제8대 회장 황윤철
- 2 \_\_\_\_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 3 \_\_\_\_ 경남오페라단 공연 <가면무도회> 중



사랑 받은 50년, 함께 나눌 미래

BNK경남은행은 지난 5월 22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축소 개최한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BNK경남은행은 '사랑 받은 50년, 함께 나눌 미래'를 목표로 앞으로 지역과 함께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황윤철 은행장은 "BNK경남은행이 지역의 대표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준 고객, 지역사회, 주주,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한 선배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윤희유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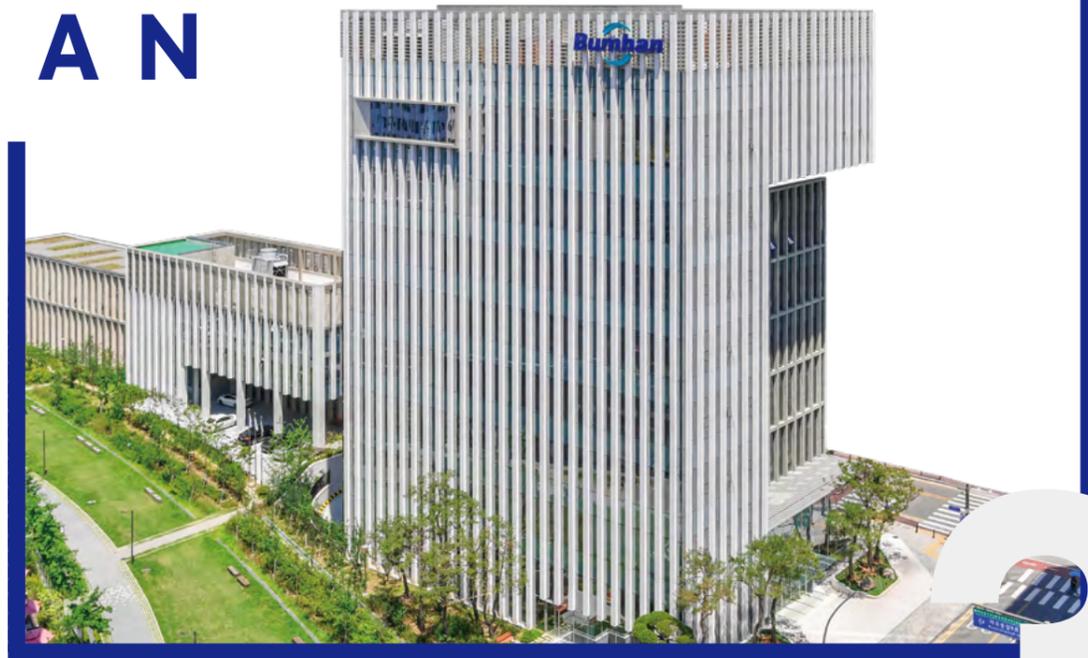
BNK경남은행의 지난 50년은 지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첫발을 내딛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자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이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지역민의 사랑과 임직원의 헌신으로 오늘날 BNK경남은행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제 BNK경남은행은 '함께 나눌 미래'를 꿈꾼다. 더 큰 꿈을 향해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50년은 지금보다 더 험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지역발전과 사회 공헌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BNK경남은행의 행보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 앞으로의 50년도  
경남과 함께 ”



# BUMHAN



## 범한산업 30년, 지역과 함께 걸으며 세계를 넘보다

**사업은 냉철하게, 나눔은 뜨겁게!**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범한산업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보다 더 빛날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힘찬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범한산업. 범한산업은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세상과 나누고 있다.

### 공기압축기에 이어 친환경 수소에너지 분야 선두주자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서른한 살의 청년은 국산 부품으로 세계를 누빌 배 한 척을 머리에 그리며 범한산업을 설립하고 공기압축기 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영식 대표는 밤낮없이 연구에 매달린 결과 1993년 국산 기술로 공기압축기를 개발해 냈다. 이후 국내시장 개척과 함께 세계 유수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에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복합 싸이클형 고압압축기'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범한산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소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산 기술로 만든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모듈을 납품하는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로 또다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마곡지구에 범한기술연구소를 개설하고 최고의 인력과 최첨단 연구 환경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주마 '당대불패'와 함께 나눔에 눈뜨다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알지 못했다.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마주했던 정영식 대표는 그의 경주마 '당대불패'가 대통령배 3연패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그에게 찾아온 꿈같은 행운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다. 우승 상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아너소사이어터 회원이 됐고, 그의 말 당대불패 이름으로도 기부하면서 말과 마주가 함께 아너소사이어터에 가입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기부와 나눔 활동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기부와 교육 환경 개선, 환경정화 활동 등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는 범한배 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하며 야구 도시 마산의 부흥을 이끌고 있고 올해는 지역 출신 골프선수인 김혜운 선수의 후원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한산업의 지역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나눔에는 경계가 없다.

### 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정영식 대표는 공연을 보며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문화예술의 매력에 푹 빠졌다.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는 예술의 힘은 범한의 그 어떤 기술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범한산업은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후원하는

것으로 '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범한산업은 지난 2013년 경남메세나협회에 가입하고 매년 두세 개의 문화예술단체와 결연을 맺고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면서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경남메세나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활동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 범한의 지원으로 창작의 나래를 펴다

범한산업과 5년째 결연을 이어오고 있는 극단 상상창고는 범한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무대 위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루마니아 바벨 연극제에서 <후에(After)>라는 작품으로 무대미학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6월 열린 춘천연극제에서는 <때때로 사랑을 멈추다>라는 작품을 선보여 새로운 시도와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범한은 해마다 정기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뮤지컬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경남뮤지컬단과도 5년째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남뮤지컬단의 <오즈의 마법사>는 창원지역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뮤지컬팀을 꾸려 공연을 펼치면서 시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노래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창원여성합창단 그린소프라노와의 결연도 계속되고 있다. 그린소프라노는 범한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노래는 물론이고 독창적인 안무를 곁들인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범한산업은 단순히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회사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결연 단체가 축하 공연을 위해 회사를 찾아오기도 하고, 예술단체가 좋은 공연을 펼칠 때면 사원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는 등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서른 살 청년이 될 동안 망망대해를 누비며 세계 시장에 우리 기술력을 드높이고 있는 범한산업.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지만, 범한산업의 가슴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람'을 향하고 있다. 세상이 기술로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범한산업의 문화예술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는다.

위대한 조형작가 문신 탄생 100주년에 부쳐

# 우주를 품은 조각가 문신



오로지 선생의 작품과 삶을 생각하며 마산으로 가 본 적이 있는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미술적 재능을 키워 세계적인 조각가가 된 예술가의 이야기는 그리스·로마의 신화를 관통한다. 자신의 운명적 삶과 염원을 예술에 투영시켜, 영혼의 영속성과 심대한 우주와의 대화로 연결시키는 미적 행위는 황홀에 이르게 하는 마법적 의식이다. 잠들어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작품들은 유럽의 지성인들을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이 위대한 작가가 탄생 백 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선생의 여러 장르에 걸친 미술작품이나 다양한 행사, 브랜드 상품들을 통해 그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행복에 젖곤 했다. 위대한 예술가의 일생을 몇 쪽에 담아내는 것은 벅찬 행복이며 고민이다.

‘우주를 향하여’ 비상을 시도했던 예술가, 창원시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文信)은 1923년 1월 16일 일본 규슈에서 태어났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아버지의 고향은 마산,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돈벌이를 위해 떠난 부모, 어린 문신은 다섯 살 때 일본에서 귀국하여 마산에 남겨지고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다.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부터 시작한 그는 어느 위대한 미술가의 시작이 그러하듯 오늘날의 성취를 얻기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경험했다. 그의 나이 열여섯,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탄 밀항선은 일본 유학으로 이어져 그곳에서 문신은 고학을 하며 일본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광복 후 문신은 귀국한다. 노예처럼 일하고 신처럼 창조한다는 삶의 초석을 깬 그는, 고향 마산에 기거하며 창작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유연하게 세상을 대하며 해탈한 지구인으로서 상반되는 것들의 조화를 꾀하는 예술창작을 지향했다. 무한 시간대로 작업하던 그는 자신의 예술을 이해해주는 곳,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꿈의 무대인 파리로의 아름다운 도피를 꿈꾸고 있었다. 문신의 제1회 개인전은 귀국 후의 창작 작품 백여 점으로 동화화랑(현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되었고, 마산지역 최초의 서양화 개인전은 세 군데 다방에서의 전시회였다. 당시의 다방들은 갤러리를 대신하는 곳이었다. 마산, 서울, 부산, 대구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들은 세칭 모던아트였다.

- 1 \_\_\_ 작업 중인 문신(1992)
- 2 \_\_\_ 채화, 무제 32x24 중국잉크(1974)
- 3 \_\_\_ 올림픽-화합(1988)

1961년, 꿈꾸던 파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당시 그의 일상은 추상화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짧은 귀국 후, 다시 프랑스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는 추상조각 작업에 매진했다. 수도사들의 고행에 버금가는 라브넬 고성(古城)에서의 수식(修飾), 문신은 삶의 궤적은 곧 예술이 되었고 예술이 곧 삶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득한다. 동서양의 장점을 수용하며, 추종할 수 없는 예술적 감각과 근면함을 소지한 동방의 예술가로 거듭난 그는 1970년 항구도시 바카레스 조형예술제에 13m의 나무조각 ‘태양의 인간’을 출품하여 세계적인 조각가로 각인된다. 그의 작품을 접한 미술평론가 자크 도판느는 “문신은 당대의 세계적 거장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신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해외 유수의 갤러리들의 러브콜을 받는 위대한 작가로 거듭났다.

1973년 4월 피카소가 서거하자 문신은 그해 5월 살롱 드메’에 피카소를 추념하는 5미터짜리 ‘우주를 향하여’를 출품하자 격한 호응을 받았지만 8월말 작업장에서 추락 척추마비를 증상을 겪기도 했다. 문신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전시회를 열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서양화가로 명성을 떨쳤다. 이때 문신 일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문신미술의 예술성에 매료된 한국화가 무명지 최성숙과의 혼인이었다. 그 시기 문신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귀화 요청을 받게 되는데 부부는 문신의 고향인 마산 추산동에 보금자리를 잡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15년 세월을 걸쳐 부부는 미술관 건립에 힘쓰며 부단한 노력으로 한국조각 발전에 기여했다. 문신은 올림픽공원에 ‘올림픽 1988’을 발표했고, 유작 조각은 ‘비상’(1995)이 되었다. 1995년 마침내 마산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추산동 언덕 위 문신미술관이 개관된다.

문신과 문신예술을 하나의 장르 속에 구속시키는 것은 그의 우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의 감성은 시인에 버금가지만 그는 거친 전통 드릴을 쥐고 작업한다. 그의 귀는 서정적 리듬을 선호하지만 반복적인 망치질은 서정적 음악과는 상반된다. 그는 회화 자체의 순수성을 지향하지만 작품구성과 터치에서 과감한 자기 화풍을 구사한다. 그의 작품 속의 곡선은 완만한 한국의 산들이며, 시메트리로 대변되는 좌우대칭은 평화로운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회화를 떠나 완성된 그의 타 장르인 조각에서는 회화적 감성, 시적 이미지, 음악적 리듬이 싹틔울처럼 솟아나 선과 색채와 형태가 경건과 신비를 동반한 생의 의지, 에로티시즘, 살아있는 것들의 기쁨이 발현된다. 문신의 조각에서 구사되는 동물, 조류, 어패류, 인간은 질서와 균형을 이룬 듯 하지만 약간의 변주와 일탈이 숨어있다. 그 유혹적 틈새가 작가가 선호하는 자유 지향의 역동성이다.



문신은 파리 체류시절 150여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초대 받았다. 영주 귀국 이후에도 문신예술에대한존중은 동유럽 순회전(1990~ 1991), 프랑스 정부가 문신에게 프랑스를 빛낸 예술가로 ‘예술훈장’을 수여했던 헨리 무어(영국), 알렉산더 칼더(미국), 문신으로 꾸린 파리 세계 3대거장 초대 조각전(1992) 등에서 나타난다. 국제적 안목을 지닌 문신은 파리에서 화가에서 조각가로 변신했다.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문신과 문신작품이지만 세계는 그를 인정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 르 피가로지 1면을 장식한 자랑스런 조각가 문신, 우주와 자연, 인간의 삶과 가치를 조망한 문신예술은 대칭 속의 조화라는 보편적 철학을 소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생성원리, 생명의 본질, 구성적인 우주의 큰 뜻을 담고 있다.

그는 죽음에 그의 곁을 찾아올 때까지도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95년 5월 24일, 문신은 문신원형작품 구상 중 소천했다. 타계 후 그에게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고, 그가 생전 많은 애정을 쏟았던 추산동 문신미술관 뒷동산에 영원히 잠들었다. 경자년 2020년은 미술계의 거장 문신의 영주귀국 40년, 타계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그의 사후에도 부인 최성숙의 헌신으로 문신을 기리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그를 기념하는 미술관 건립과 전시회 및 심포지엄은 물론 2006년 월드컵 기간에 즈음하여 독일 바덴바덴 교향악단의 연주로 현지에서 문신 추모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많은 유럽의 음악인들은 문신의 예술세계에 대한 헌정곡에 열광했다.그림으로, 조각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문신예술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문신은 우리 곁에 살아있다.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

#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오는 9월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열린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첫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어느덧 제5회째를 맞이한다. 주제는 ‘비(非)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조각비엔날레에 비조각이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각의 전형적인 볼륨과 매스를 탈피하고 다채로운 소재를 활용한 가볍고 유연한 작품들까지 만날 수 있다. 경계를 허무는 다양성이 하모니를 이루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역동적인 비엔날레가 될 것 같다.

역대 최대 · 최대 · 최초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에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다. 먼저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치러진다. 한국을 비롯하여 가까운 일본과 중국, 멀리로는 쿠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총 33개국 85개 팀 91명의 작가들이 125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이 중 지역작가의 비율은 역대 최대다. 단순히 지역 출신 참여 작가 수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지역작가가 직접 전시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기획력을 갖춘 신진 작가 발굴까지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5개국 작가 5인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로써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전 대륙 현대 조각의 트렌드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역대 최초로 비엔날레의 얼굴이 될 홍보대사로 배우 진선규를 위촉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깊이 있게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창원”발 조각비엔날레

창원은 문신, 김종영, 박종배 등 한국 조각계의 거장들을 배출한 도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각을 특화하여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다. 이러한 이유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갖는 상징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팀은 창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시와 비엔날레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행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출신 작가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미술협회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지역의 유명 빵집인 ‘그린하우스’와 협업하여 전시장 일부 공간에 빵공장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무대미술가와 지역 공연단체와의 컬래버레이션은 비엔날레에 풍성함을 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시민과 함께하는 비엔날레 개최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창원시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표적인 행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뮤지엄 <Just Do It>**  
**기간** 8월 29일 ~ 11월 1일 **장소** 성산아트홀 지하1층 특별관  
**대상** 창원 거주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비엔날레 출품작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보고 전시

**비조각 프로젝트 <비조각의 원더랜드>**  
**기간** 8월 22일 ~ 10월 17일(매주 토요일) **장소** 창원대학교메이커아지트  
**대상** 창원 거주 8세~10세 어린이 및 가족  
 3D프린터·3D펜을 이용한 입체회화/조각 작품 만들기

**청소년 미술 문화 프로그램 <Hipster Project, Art & Me>**  
**기간** 9월 12일 ~ 10월 31일(매주 토요일) **장소** 성산아트홀 광장  
**대상** 창원 거주 청소년  
 바다페인팅 시연

**커뮤니티 프로그램 <걱정 교환소>**  
**기간** 8월 29일 ~ 11월 1일 **장소** 성산아트홀 지하1층 특별관  
**대상** 관람객 누구나  
 각자의 걱정을 공유하며 나와 너를 이해해보는 시간

**총감독 특별 투어 <비조각의 세계로>**  
**기간** 9월 중 1회, 10월 중 2회 **장소** 용지공원, 성산아트홀  
**대상** 시민강좌 ‘조각의 모든 것’ 참여자  
 비엔날레 총감독이 직접 진행하는 해설 투어

**아티스트 토크**  
**기간** 8월 ~ 10월(매주 토요일) **장소** 성산아트홀 2층 다목적실  
**대상** 관람객 누구나  
 참여작가의 작품소개 및 관객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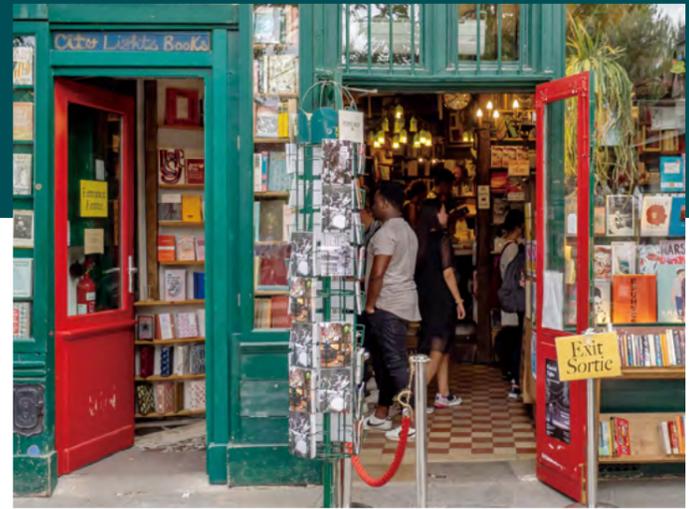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_\_\_ 소리나무(2020) 성동훈(한국) 작  
 2 \_\_\_ 어떤 형상(2020) 김동숙(한국) 작  
 3 \_\_\_ 잃어버린 시간 2(2013) 글렌다 리온(스페인) 작

# SHAKESPEARE AND COMPANY

## 파리 문단을 이끈 작은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 문학 메세나인 ‘실비아 비치’를 만나다

20세기 초 파리의 풍성한 문단을 이끈 것은 좋은 소재, 좋은 작가, 좋은 작품에 앞서 작가를 믿고 그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 든든한 후원자 실비아 비치(1887~1962)였다. 그는 파리 뒷골목의 작은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주인이자 위험을 무릅쓰고 좋은 책을 출간해 낸 출판업자였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작가를 돕고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 ‘문학 메세나인’이었다. 그의 저서는 자서전 <셰익스피어&컴퍼니> 한 권뿐이지만, 그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온 많은 작품이 지금까지도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실비아 비치는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를 당대 유명한 작가들의 사교장으로 만들고 낭독회를 통해 시민들이 문학을 마음껏 누리게 했으며, 좋은 책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20세기 초 파리 문단을 이끈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금서로 지정된 <울리시스>를 과감하게 출판하고,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생활이 힘든 작가가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후원해 주었다.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작가의 책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힘썼던 문학 메세나 활동가, 실비아 비치.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저서인 자서전 <셰익스피어&컴퍼니>에 나타난 그의 삶을 들여다보자.

### 서점 ‘아드리엔 모니에’에서 꿈과 만나다

실비아 비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파리에 정착해서 살았다. 문학을 사랑했던 그는 프랑스 문학을 공부해 불 요량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그가 찾는 비평지를 구하기 위해선 파리 뒷골목에 있는 서점 ‘아드리엔 모니에’로 가야 한다는 정보를 듣는다. 아드리엔 모니에 서점을 방문한 실비아 비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무엇에 이끌린 듯한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었던 셈이다.’

실비아 비치는 서점주인 아드리엔 모니에와 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진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포성이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실비아 비치는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작가의 낭독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문학과와 친분을 쌓았다. 전쟁도 총성도 그의 문학 사랑을 꺾을 순 없었다.

### 파리 뒷골목 작은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실비아 비치는 오래전부터 서점을 차리고 싶은 꿈이 있었고, 마침내 파리 뒷골목에 영어 문학 전문 서점을 차렸다. 프랑스에 있는 영어책 전문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책을 모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신간을 보내 주면서 서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험을 떠나는 셈’이었는데, 그동안 그가 만났던 많은 문학가의 도움으로 훌륭한 서점을 차릴 수 있었다.

1919년 11월 19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드디어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문을 열었다. 파리 뒷골목 작은 서점은 문을 열자마자 문학인들에게 사랑받는 쉼터이자 사랑방이 되었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까지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미국 문학가들이 프랑스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놓고 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을 피해 프랑스로 건너와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많았다. 프랑스로 건너온 미국 작가들에게 파리의 작은 영문학 서점은 미국과 프랑스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 서점을 사랑한 유명한 문학가들

서점이 문을 열자 많은 사람, 특히 많은 작가가 서점을 찾아왔는데 대표적 인물이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이다. 헤밍웨이는 1921년 처음으로 서점을 찾아왔는데, 날마다 서점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꺼이 책을 구입해 가는 ‘최고의 고객’이었다. 실비아 비치는 아직 작가로 이름을 떨치지 전인 헤밍웨이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헤밍웨이는 젊은 사람치고는 매우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여러 나라 언어를 알고 있었으며, 여행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대학이 아니라 현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다. 헤밍웨이야말로 내가 아는 어떤 젊은 작가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 듯했다. 약간 유치한 구석이 없진 않았지만,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총명하고 독립적이었다.’ 이 밖에도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많은 작가에게 사랑받았다. 앙드레 지드, 폴 발레리, TS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제임스 조이스 등 문학과 작곡가 조지 앤타일을 비롯한 음악가들도 서점을 드나들었다. 이곳에 오면 당대 많은 작가들과 허심탄회하게 교류할 수 있었고 원하는 책이 있으면 구해다 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실비아 비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술가들을 기꺼이 도우며 그들의 작품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다.

### <울리시스>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와의 만남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대작 <울리시스>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를 만난 일이다. 실비아 비치는 제임스 조이스와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중간 정도의 키에 마른 체격이었으며, 약간 구부정한긴 했어도 품위가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가냘픈 손이었다. 왼손 가운데손가락에 꽤 큰 보석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었다. 마치 천재적인 영감이 번뜩이는 듯한 짙은 푸른색의 눈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당시 제임스 조이스는 ‘리틀 리뷰’라는 문학지에 7년째 ‘울리시스’를 게재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작품이 외설 시비에 휘말리면서 어디서도 작품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제임스 조이스는 ‘울리시스’를 세상에 선보일 수 없을 거라며 낙담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지켜본 실비아 비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출판 계약을 맺게 됐다. “그럼, 저희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울리시스를 출간하는 영광을 누리려 될까요?” 실비아 비치는 용감하게도 영여권 나라에서 금서가 된 이 책을 프랑스에서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책을 출간하기로 한 후에도 제임스 조이스는 교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실비아 비치는 책은 작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수정하도록 지켜봐 주었다.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 <울리시스>가 미국으로 반입될 수 있었던 데는 헤밍웨이의 도움이 컸다. 헤밍웨이는 <울리시스>를 금서로 지정하지 않은 캐나다로 책을 먼저 보내고, 캐나다에서 옷에 책을 숨겨 미국으로 가져다 날랐던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울리시스>를 미국에 나르는 데 성공한 헤밍웨이의 용기 덕분에 이 책이 미국에 닿았고, 훗날 마침내 미국에서 정식으로 출판될 수 있었다.

### 작가를 후원한 서점, 작가들의 후원을 받다

이렇게 많은 작가를 후원하고, 작가들의 든든한 사랑방이었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도 위기가 닥쳤다. 서점은 날로 유명해지고 손님들로 붐볐지만, 경제 불황의 늪을 빠져나가긴 힘들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단골이었던 앙드레 지드는 ‘우리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를 포기할 순 없지’라며 작가들을 소집해 서점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서점 후원회를 조직했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후원회는 주로 작가들로 구성됐는데, 서점에서 낭독회를 펼쳐 서점을 돕기로 했다. 낭독회는 1936년 2월 앙드레 지드의 희곡 낭독으로 시작해 1937년 헤밍웨이와 스펜더의 동시 낭독회로 끝을 맺었다.

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9년 다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실비아 비치가 6개월간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여러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1941년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문을 닫는다. 실비아 비치는 이후 1959년에 서점과 함께한 자신의 일대기를 쓴 회고록 <셰익스피어&컴퍼니>를 출간했다.

###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역사가 이어지다

실비아 비치가 운영하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문을 닫았지만, 그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지난 1964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서점 주인인 조지 휘트먼은 실비아 비치의 장서를 모두 인수하면서 서점 이름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지금도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파리 문단을 이끌었던 문학유산이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작은 서점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작가의 열정만큼이나 대단한 열정으로 작가를 후원하고, 좋은 작품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힘쓴 실비아 비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 세상 모든 <울리시스>를 위해

우리는 흔히 세기를 이어 남을만한 걸작을 써낸 작가를 대문호라 부른다. 그런데 대문호의 작품이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무명 작가일 뿐. 실비아 비치가 용감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울리시스>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앙드레 지드가, 헤밍웨이가 글쓰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그들은 대문호라 불리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읽을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문학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아마 실비아 비치일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첫 작품을 써내지 못한 또 다른 헤밍웨이가, 좋은 작품인데도 묻혀 있는 또 다른 <울리시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뒷골목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그 작품을, 그 작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실비아 비치’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메세나와 문학인



이종화  
수필가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
- 한국문인협회 사료발굴 위원
- 진해문인협회 회장 역임
- 진해 기적의도서관장 역임

우리의 삶은 정신의 풍요가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경제가 더없이 팍팍한 요즘은 생활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문화예술, 이보다 더 사람을 사람답게, 빛나게 해주는 존재도 없지 않은가.

어떤 분야이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유독 문화예술인들은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멀고 험난하다. 수익과도 또 거리가 멀다. 때문에, 기업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메세나 사업이야말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얼치기이지만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순간들을 겪게 되는지를 공유하면서 경남의 메세나 기업들이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글빛은 때로 돈빛보다 무섭다. 그 시달림이 사람을 얼마나 탈진시키는가는 글 쓰는 사람이면 안다. 작품을 발표할 때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 어디에나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는 그 주제와 소재를 쫓아서 전전공공하는 사이 한 달 두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기도 한다. 근근이 장만한 겨울철의 글감은 봄이 다가오자 유효기간을 놓치기 일쑤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혼란스러운 게 글쓰기이다. 문학작품의 가치를 가리는 데는 공인된 저울이나 자(尺)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단편집을 두고도 열 명의 독자는 열 가지 견해를 말한다. 평론가에 이르러서는 두 명이 세 갈래 네 갈래의 이론을 풀어낸다. 설이 많다는 것은 정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곧바로 가는 수밖에 없다. 역량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서 혼신으로 썼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작품이다. 피 말리며 밤새워 쓴 글이 크게 칭찬받을 때 마약처럼 전신으로 번지는 기쁨을 누가 모른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따뜻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것이 독자의 인심이다.

글은 머리띠 두르고 무작정 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발전도 변화도 없는 잡문을 자꾸자꾸 찍어서 광고 전단 뿌리듯이 여기저기 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평생 끝나지 않는 길을 가는 순례자이어야 한다. 우리가 문학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저런 창작기법을 익혀서 작품을 내고자 함이 아니다. 지혜를 닦아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이 모자라면 당사자 혼자서 좀 불편하면 된다. 한편 지혜가 모자라면 주변을 온통 불편하게 만든다.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이 감명을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오직 하나 '지혜' 이었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전능자의 물음에 부와 권세 특히 불로장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왕국을 이끌어갈 지혜 하나만을 원했던 것이다. 솔로몬 왕은 당대의 시인이었다. 그가 다른 장르의 글을 썼다고 해도 잠언이나 전도서 이상의 명문을 남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지혜의 자궁에서 잉태되기 때문이다.

바랄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 정확하게는 귀족이 되고 싶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류가 확실한 이 시대의 귀족을 동경하고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자만심과 자존심을 분간하는 지성, 열을 알면서 일곱을 드러내는 절제, 사흘을 굶어도 담을 넘지 않은 지조, 평등이란 기회의 균등일 뿐 결과의 균등이 아님을 자각하는

양식, 잘난 사람을 인정하는 자신감. 이런 품격을 지닌 귀족이 분명 있을 진 데 물질 중심적인 천박성의 기승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정신의 귀족이 없는 사회는 초라하다. 그리고 비참하다.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문학인들에게는 있어 마땅하다.

우리에게는 '떠나라. 일상으로부터 떠나라.'는 앙드레 지드의 한 마디에 낫 놓고 매혹된 시절이 있었다. 일상을 벗어나려고 힘에 부치는 여행을 하며 해외의 국경을 넘어 다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그간의 모든 삶이 정지된 이제야 실감하는 것은 일상의 소중함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다시 해가 지듯이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다. 그리고 인생이 보인다. 창가에 떨어지는 작은 새소리를 듣고 찰나를 통과하는 빛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 문학을 만난다. 깊고 맑게 그리고 조용히 ... .. 그리하여 글을 쓰고 귀족이 된다.

지금도 원고료를 받지 못해 고달픈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고 있지만 글쓰기는 포기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 우리 모두의 갈증을 풀어주고 삶을 운터하게 해줄 문학을 잉태하게 만드는 메세나를 기대하며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 L I F E I S E N S E M B L E

## 11. 12 (목) - 11. 15 (일)

2020 창원국제실내악축제가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Life is Ensemble'. 너와 내가 조화를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양한 악기가 만나 선율을 만들어내는 앙상블(실내악)과 닮아있다. 때로는 제 소리를 드러내며, 때로는 다른 악기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화음을 이루는 실내악처럼 서로 배려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가는 메시지를 담았다.

11. 12(목) 19:30 개막공연 <꼬니니꼬 체임버 앙상블> with 플루티스트 필리프 운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 김다미 | 11. 13(금) 19:30 <아벨 콰르텟> | 11. 14(토) 13:00 창작 실내악이 흐르는 오후 | 11.14(토) 17:00 <아벨콰르텟 & Friends>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아비람 라이헤르트 & 첼리스트 이강호 | 11. 15(일) 17:00 폐막공연 <서울 비르투오지앙상블> with 발레리나 조연재 & 발레리노 이영철 || 11.14(토) 10:00 마스터클래스 바이올린 서울대학교 이경선 교수, 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호 교수, 피아노 서울대학교 아비람 라이헤르트 교수(사전공모)

※ 공연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최 | 창원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 055-268-7911



## 김광석 뮤지컬

# 바람이 불면 그곳

사랑과 꿈, 낭만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젊은 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의 여행

2020. 9. 16. 수 오후 7시 30분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www.timf.org

티켓: A석 3만원, B석 2만원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만 7세 이상) 공연문의: 055-650-0400

주최: 통영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재)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민문화회관, LP 스토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 Gyeongnam Mecenat Members

## 경남메세나 회원사

### 회장사

BNK경남은행

### 부회장사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무학

(주)센트랄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리지

### 이사사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 보존회

김도기(창원대학교 음악과)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주)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주)지엔티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주)

### 감사사

(주)정일

청호산업(유)

### 회원사

가야BBS(주)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부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오페라단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구려

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드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슬개발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업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매직(주)

(주)네오씨티알

늘푸른 요양병원

당당한방병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주)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주)

(주)대호테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주)

디케이리액(주)

라온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주)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복성산업

(주)사릭

사보이호텔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원테크(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병원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세노텍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주)엔지피

영광산업 주식회사

(주)영남엘피씨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주)예술상점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ONE

(주)옥산아이엘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주)윌렘

유림건설(주)

(주)유림철강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주)

(주)이엔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장한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텍

(주)좋은콘서트

주용테크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주)

(주)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주)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코알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쿠쿠홍시스(주)

태광실업(주)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주)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창테크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해수종합건설(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주)화영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주)화인에이티씨

(주)환웅정공

현대로템

흥일기업(주)

STX조선해양(주)

STX엔진(주)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상생하며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들의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_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간/문화경영도서\_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_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합니다.

###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협회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과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지원 사업

설치 비용 최대 90%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발전사업 기회! 선착순 모집! 전화주세요.



대표이사 박정우



대표이사 김은숙

검증된 업체에 믿고 맡기세요!

- 1 최적화 설계기술
- 2 다기능 전력변환기술
- 3 엄격한 품질관리
- 4 완벽한 서비스

(주)엔지피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18 | www.ngp.kr

055.252-9660

# 푸주옥

음식에도  
名品이 있습니다

푸주옥은 큰 가마솥에 소의 각 부위 (족, 무릎, 도가니, 사골, 사태, 양지등)를 푸짐히 넣고 정성과 진심으로 끓인 식으면 묵이 되는 올바른 진국만을 판매합니다.

Take out도  
가능합니다



정성과 진심으로 끓인 올바른 진국만을 판매합니다

경남 창원시 용호동 11-6번지

淸 暎 : 이석희  
푸주옥 대표  
(사)한국명시낭송가협회 이사장





당 신 덕 분 에



당신과 함께한 50년

매일같이 잊지않고 찾아준 덕분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덕분에

한결같이 믿고 맡겨준 덕분에

덕분에 우린 지금 행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을 만나보세요

# 몸과 마음이 편안한 치료로, 당당한 삶을! 당당한방병원 김해점



의학·한의학 협진 | 재활치료 | 추나치료 | 도수치료 | 입원실 운영 | 김해시 가락로 23 당당메디컬센터 5~9층  
월·수·금 09:00 ~ 20:30 | 화·목 09:00 ~ 18:00 | 토 09:00 ~ 14:00 | ☎ 055) 331 2020

당당한방병원 김해점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